

공공정보 활용의 기술적 방법과 정보서비스의 정책적 함의

김영미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A Study on plan for promoting innova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sharing

Youngmi Kim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Sangmyung University

요 약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의 개방적 네트워크 구현이 필요하며, 더불어 소통능력을 제고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의 기능성의 변화와 정부에 대한 새로운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시키기 위해 민간이 정부의 역할에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공공 플랫폼형 정부의 기능과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정보 공유 기반의 혁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특히 정부와 민간의 정보 및 시스템 등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효율적 역할 분담 등 플랫폼형 정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제어 : 공공정보, 정보공유, 개방적 네트워크, 공공 플랫폼형 정부, 정보자원

Abstract Paradigm shift in government services means the evolution to the service with active participation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Opening public information proceeds to an extent that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can be a basis and driving force, and extends to a stage that free and practical use is possible for private sector. Therefore, the government is preparing for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various fields. The government needs to build open network from user-oriented point of view rather than provider-centric point of view, improve communication, and change the way of working due to the fact that flexible and rapid business process is required. It is time to prepare development plans for public the functions of platform-type government that public sector can participate in the role of government, create new value, and give rise to innovation in order to change the functionality of the government and meet the new needs of citizen. This study tries to analyze platform-type government and to study efficient role allocation for sharing resources including informant and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focusing on innovation of public information sharing.

Key Words : Public information, Information sharing, Opening public information, Platform government

1. 서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서비스로의 진화를 의미하며, 지금까지 공공서비스는 폐쇄적인 정보제공에서 정부 2.0이

정부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 본 논문은 2013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Received 3 February 2014, Revised 3 March 2014

Accepted 20 April 2014

Corresponding Author: Youngmi Kim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Sangmyung University)

Email: young@sm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논의되면서 개방과 공유개념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국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이익실현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발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진일보한 시각에서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즉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의 개방적 네트워크 구현이 필요하며, 더불어 소통능력을 제고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의 기능성의 변화와 정부에 대한 새로운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시키기 위해 민간이 정부의 역할에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공공 플랫폼형 정부의 기능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¹⁾

2. 기존논의 검토

2.1 정부3.0과 공공정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으로 정부3.0을 제시하고,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하였다(안진행정부, 2013).[1][16]. 웹2.0 정신(개방·참여·공유)의 사회진반적인 확산, 지식창조 시대의 도래와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경제부흥의 새로운 모멘텀 필요,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문제의 대두,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정부-국민간 관계 변화 등 시대상황의 변화와 새로운 환경의 도전으로 정부3.0이라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새 국정운영의 기제로 제시하고 있다.[1]

정부3.0을 명확하게 제시하기까지 새 정부 창출이후 시간이 소요되었다. 시작은 정부3.0의 객관적·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 또는 관계자들 간에 개념정의와 목표 등에 관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였다.[1][2].

정부3.0은 기술적 관점에서는 정부3.0을 정부업무와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 혹은 웹의 발전과 연동하여 차

세대 전자정부로 이해한다.[3] 행정적 관점에서는 정부3.0을 정부가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고 국민을 정책결정의 주체로 인식하는 협치를 이루어내는 단계로 이해한다. 즉 국민이 권리의 주가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5] 또한 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범위도 국민의 요구, 기술 환경, 사회가치의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한다는 시각에서 정리될 수 있다.[1]

여러 관점의 개념정의가 있지만 정부3.0의 기본방향은 개방과 공유, 협력적 정부, 소셜러닝 정부, 민간협업으로 한정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간참여를 통한 공공정보의 개방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오픈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2]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만들어주고 개발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다.[6] 공공정보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의 결합 및 활용을 통해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주요 초점을 두고 전개된다.[7][9]

최근의 사회는 사회구조의 복잡성 심화, 기술 발전의 혁신, 새로운 지식을 통한 지식 축적 및 정책결정 등 전반적인 부분들이 빅데이터와 연계된다. 이에 정부와 민간의 협업 확대로 집단지성 구현 및 협치 강화도 중요한 기제로 강조되고 있다.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국정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활용하며, 정부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하여 민간과의 공유를 확대하고자 한다. 즉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새로운 경제기반의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3.0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폭증하는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자원화 하여 새로운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영역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Table 1> 참조

정부3.0의 중점 추진과제를 첫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위한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③ 민관·협치 강화를, 둘째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위한 ① 정부 내 칸막이 해소, ②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③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지향적 행정 구현을, [2] 셋째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위한 ① 수혜자 맞춤형

1)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국환(외) “사람중심 소통사회를 위한 신정보화 전략연구”의 일환인 김영미(외), “공공정보 공유기반 혁신 및 활용 촉진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임.

서비스 통합 제공, ②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③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④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을 제시추진하고 있다. [15][17]

<Table 1> The change of service paradigm and Gov.3.0

Division	Gov.1.0 (Government)	Gov.2.0 (Citizen)	Gov.3.0 (customized)
service	one-way limited infirmation time. limited time/space supplied side service	both-way release of information Mobile service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fusion service	-customized service real-time information seamless service
Channel	wired internet	wired.wireless internet	wired.wirelessMobile integral service
integrated work	unit business process	process integral	service integral
foundation technique	Web browser	Broband, Rich Link/ Content Models	semantic, Sensor Network

Source: NIA((2009)[17]

2.2 공공정보의 의의

공공정보의 개념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해석된다. 학자들간에도 이견이 많고 다양한 관점의 접근들이 있지만 공공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보는 협의의 해석과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공익정보로 광의적 해석을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EU의 공공정보에 관한 녹색(Green Paper on Public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은 공공정보를 보유주체를 통해 정의하되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3가지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국가기관 또는 공공부문 중에서 공공역무(정책 등)를 제공하는 기능적 측면으로 공공정보를 이해한다. 둘째 법률적인 접근방법으로서 관계법령에 명시된 공공정보를 나열하는 것이다. 셋째 공적자금 또는 공공예산을 통한 접근방법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모든 기관을 통해 공공정보를 정의하는 것이다. 녹서의 접근방법을 따라 공공정보의 개념을 모든 공공역무에 활용되는 정보를 모두 제공대상으로 할 것인지, 법률을 근거로 공공정보를 확정할 것인지, 국가의 공적자금이나 예산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의 범위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2].[1]

2.3 공공정보의 활용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투명성 제고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전자정부 구현 수준이 고도화 되면서 공급자 측면의 구현을 넘어서서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는 단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자정부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단계를 지나 공공정책과 서비스 설계·제공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점차 정책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정보 개방과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반 모색이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ICT 신기술과 공공정보를 접목한 응용 프로그램과 킬러 서비스,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2][12] 이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앱 개발자 등은 공개되는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새 비즈니스 영역의 확대 및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12][14] 중요한 점은 신규 서비스 창출 로 한층 다양해지는 서비스영역을 공공정보를 활용해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14] 각종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1]

3. 공공정보 활용의 기술적 방법

공공정보 활용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기반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이에 지금까지 적용되어 온 기술기반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들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성 모색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고자 한다.

2)(<http://www.law.go.kr>, 2013.7.13.)

3.1 Open API

근래에는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추세를 쉽게 볼 수 있다.[6] 전통적 의미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에 의해 사용되는 일단의 기능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인터페이스로 파일제어, 윈도우제어, 화상처리, 문자제어 등을 포함한다.[7] Open API는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를 구현하는 핵심기술로 서비스, 정보, 데이터 등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웹 서비스 API를 말한다.[4]

Open API는 새로운 서비스의 제작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Open API를 이용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Open API 서비스 이용자는 Open API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키 발급을 요청하고, 제공자가 요청에 따른 승인처리를 하면 이용자는 인증키와 서비스 명세의 메소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API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5] 그러나 모든 Open API 제공자가 인증키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구글 AJAX 언어 API나 구글맵 API v3 경우는 인증키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완전 개방된 형태의 Open API 서비스이다.[1]

3.2 매쉬업

기본적으로 매쉬업이란,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섞고(Mix), 조합(Match)하여 좀더 가치있는 새로운 서비스나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매쉬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여기 저기 웹을 검색하여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에서 매쉬업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한 번에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7]

매쉬업 서비스는 Paul Rademacher가 구글 지도를 부동산 정보와 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housingmaps.com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사람 중심

의 시스템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환경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것보다 정보의 저장과 전달은 물론 재생산하고 빠르게 접근하는 미디어적 환경이 중시되고 있다.[1][2] Open API와 매쉬업 서비스의 포털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로그래머블웹(programmableweb.com)의 현황을 살펴보면(2011년 5월 6일 현재), 3,205개의 Open API와³⁾ 5,787개의 매쉬업 서비스 제공 사이트가 등록되어 있고, 매쉬업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Open API로 구글맵이 가장 비중이 컸으며(41%), 그 뒤로 트위터(10%), 플리커(10%), 유튜브(10%) 등 소셜미디어 API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나아가 매쉬업 사이트의 경우는 역시 지도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가장 많았고(33%), 그 뒤로 검색(9%), 사진공유(9%), 쇼핑정보 제공(9%), 소셜미디어 서비스(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⁴⁾[8][9]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3.3 링크드 데이터⁵⁾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에 의해 제안된 링크드 데이터(Linked Open Data: LOD)는 분산된 웹 환경에서 이질적인 데이터 간의 통합과 재사용의 목적을 가진 시맨틱 웹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반기술로서 트리플 모델(주어, 서술어, 목적어)을 기반으로 한다.[11] 링크드 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자는 웹을 통해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를 발행하고, 서비스 사용자는 웹에 발행된 데이터를 통해 구조를 파악해 원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12] 또한 서로 분리되어 있는 모델(데이터)을 HTTP와 SPARQL을 이용해 연결하여 한 번에 질의하는 것이 가능하며, 데이터는 각각의 특성을 통해 객체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13]

3.4 함의

그 동안 우리는 공공정보 공개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국가지식포털, 공유자원포털, 공공정보활용지

3) 2012년 5월 말에는 프로그래머블웹 디렉토리에서 약 6천여 개의 Open API를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 2007년 12월 19일 기준, 매쉬업의 Open API 활용 현황에 관한 프로그래머블웹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구글맵이 전체의 48%, 플리커가 11%, 아마존이 8%, 유튜브가 7%, 이베이가 4%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구글맵의 활용도는 현재보다 다소 높으며, 당시의 아마존, 이베이 등의 위치를 현재는 소셜미디어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21).

5) 이하의 논의는 <http://www.bloter.net/archives/132627>(검색일: 2013.7.12.)을 중심으로 발췌 및 정리한 것임.

원센터로 분리 운영되었으나, 2013년 1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통합 이전되었으며, 데이터 공유자원과 Open API 공유자원으로 분리하여 국가가 보유한 정보자원을 제공하고 있다.[11]

공공데이터포털은 현재 605개 기관에서 1,715종 16,814,772건의 데이터 제공 및 289개의 Open API를 공개하였고(2013년 7월 13일 기준), 활용지원센터 운영 및 개발자 LAB 지원 등을 통해 개발자가 용이하게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13]

4. 공공데이터포털의 추진체계 및 과제

공공데이터포털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국무총리 소속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의 심의·조정 및 추진사항 점검·평가를 수행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공표, 운영실태 평가, 기본계획 수립, 제공기반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을 두어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및 제공 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한다.[10][11]

공공데이터포털은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첫째 정보 공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민간개방이 핵심요소이다.[13]

둘째 공공정보 개방·공유를 위한 공통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활용이 가능하도록 DB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개방된 공공정보를 일괄 관리·등록·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14] 셋째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 창조기업, 사회적 기업 대상 공공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공공데이터 융합으로 신가치 창출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강조하고 있다.[13]

4.1 공공정보 공개현황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정보 개방현황을 분류별, 기관별, 제공방법별, 지역별로 제공하고 있다. 먼저, 7가지 기관분류에 의한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행정기관에 의한 정보가 571종, 자치행정조직에 의한 것이 611종, 교육행정 조직의 정보가 64종, 입법조직의 정보가 32종이며,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가 571종에 이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현황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 the institutional open data status

	Total	OPEN_API	DAT A	down load	deliv ery	OPEN_API	system	Web	Total
Total	1715	38	335	231	52	68	94	215	682
Public	571	9	181	92	7	17	28	57	180
Edu.	64	0	51	1	0	0	1	0	11
National	429	20	73	55	24	30	33	63	131
national armed forces	1	0	1	0	0	0	0	0	0
Priv.	3	0	2	0	0	0	0	1	0
the machinery of law	1	0	0	1	0	0	0	0	0
a law-making organ	32	1	9	11	0	10	0	0	1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611	8	18	71	21	11	32	94	356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3	0	0	0	0	0	0	0	3

Source:(<https://www.data.go.kr>, 2013.7.13).

4.2 국내사례

오픈 플랫폼을 통해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내사례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과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들 수 있다.

먼저, 서울시의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은 공공데이터 서비스 통합 창구로 민간에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IT 콘텐츠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서울시 보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것이다. 공공데이터의 존재여부 및 소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및 검색을 통해 원천 데이터의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Open API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 현황은 <Table 3> 같다(2013년 7월 현재). [16][17]

열린데이터광장의 주요 서비스로는 첫째 sheet, chart, map, file, link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공공정보 데이터 셋의 조회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서울시의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개발자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Open API 서비스 중심이다. 셋째 서울시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포털의 API 서비스 목록, 민간기관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카탈로그 서비스이다. 넷째 개발자를 위한 API 사용방법, 인증키 신청 및 확인, API 테스트를 제공 및 개발자가 만든 앱과 웹을 공유할 수 있는 참여소통 서비스 등이 있다. [16][17][18][19][20]

<Table 3> Seoul City Open Data

Division	Sheet	Chart	Map	Link	File	Open API	Total
Ge. Ad.	90	0	40	146	67	94	437
Urban Adm.	18	0	10	66	10	35	139
Env.	85	0	54	52	54	97	342
Safety	15	0	8	39	8	15	85
Edu.	6	0	4	34	4	6	54
Ind. Eco.	12	0	0	103	0	12	127
Welfare	4	0	0	93	1	4	102
Trms.	23	0	4	47	5	40	119
Cul. Tour	74	1	20	49	20	81	245
Health	5	0	2	35	3	6	51
total	332	1	142	664	172	390	1,701

Source: (<http://data.seoul.go.kr>, 2013.7.13.).

5. 결론

현재 정부3.0의 정책기조 하에서 다양한 공공정보 공개·공유의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정보의 공개·공유가 일반 국민생활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인식수준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민간 기업이 공공정보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창출분야의 명확한 요소등이 개진될 때 그 활용과 성과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정보 활용 활성화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와 민간 기업의 유입 인센티브 부재의 문제는 공공정보 활용 활성화의 문제를 단순히 정부 혹은 공공부문 차원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정책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시각에서는 공공정보 활용 활성화가 일상생활에서의 공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정보 활용 활성화, 나아가 공공정보와 민간정보의 융합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향유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보다 직접적으로 향상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1]

민간부문의 활용여부를 둘러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역할 범위가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을 추동하고 견인하는 것 까지 나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정보를 민간이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즉 공공부문과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체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3][5]

이 과정에서 공공정보 플랫폼과 관련한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이 글로벌 플랫폼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 민간 개발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조성의 의미를 담고 시작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시각에서 창출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데이터의 활용만이 아닌 해외데이터와의 결합가능성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6] 따라서 호환성을 겸비한 구도는 향후 지속성과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쟁점이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자 장애요인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 관점에서양자

간의 연계 및 증계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1]

공공정보 플랫폼의 구성 및 발전방향은 단계별 의미를 각각 함축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플랫폼이 공공데이터의 단순 제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결합과 분할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정보 활용의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시각에서 기술적 접근의 의미와 모색이 보다 심도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Sang Myung University research in 2013.

REFERENCES

[1] Youngmi Kim, Seungmo Lee, Sookhei Kim(2013), A Study on plan for promoting innovation and utilization of public information sharing, KISDI

[2] NIA(2012). 「The Case of Big Data for the Future: Case study II」.

[3] Bizer, C., T. Heath., and T. Berners-Lee. (2009). Linked Data - The Story So Far. *International Journal on Semantic Web and Information Systems* 5(3): 1-22.

[4] Davies, T. (2010a). Open data, democracy and public sector reform: A look at open government data use from data.gov.uk.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Oxford.

[5] Davies, T. (2013). Open Data: Infrastructures and ecosystems.

[6] Eibl, G., J. Höchtl., B. Lutz., P. Parycek., S. Pawel., and H. Pirker. (2013). Framework for Open Government Data platforms. White paper, Open Government Data-1.1.0, Result of PG.

[7] Erbach, Gregor. (2012). Open data for growth, jobs and transparency: Creating value from public sector

information. *Library Briefing: Library of the European Parliament*(11/05/2012).

[8] Garcia, Miguel. (2013). European Public Sector Information Platform. *ePSIplatform Topic Report* No. 2013/06.

[9] Gartner. (2012.10). Big Data Drives Rapid Changes in Infrastructure and \$232 Billion in IT Spending Through 2016.

[10] Gartner. (2012.6). The Importance of 'Big Data': A Definition.

[11] Miller, P. (2010). Linked Data and Government. *ePSIplatform Topic Report* No: 7(1 June 2010).

[12] Nagy-Rothengass, M. (2013). Open Data in Europe. paper presented ePSI workshop, 02.10.2013, Budapest.

[13] O'Reilly, T. (2010). Government as a Platform. *Innovations* 6(1): 13-40.

[14] Philip Russom(2011), Big Data Analytics, TDWI Best Practices report.

[15] Yu, H., D. Robinson. (2012). The New Ambiguity of "Open Government". *59 UCLA L. Rev. Disc.* 178: 178-208.

[16] <http://www.mospa.go.kr/frt/a01/frtMain.do>

[17] NIA(2009), "The change of service paradigm and Gov.3.0"

[18] EU(2012), Green Paper on Public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19] <https://www.data.go.kr>

[20] <http://data.seoul.go.kr>

김영미(Kim, Youngmi)



- 1986년 2월 : 상명여대 행정학과(행정학사)
- 1988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행정학석사)
- 1993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행정학박사)
- 1994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전자정부, 정보보안, 지역정보정책
- E-Mail : young@snu.ac.kr